

“모두가 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수신 환경부 장관

제목 2025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중단 요청 및 홍보 협조의 건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환경보건팀은 ‘2020년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 전수조사 및 행사취소 촉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열리는 풍선날리기 행사를 감시하고 저지하는 활동을 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지자체에 행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는 축하의 순간에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자연환경에 큰 피해를 끼칩니다. 날려 보낸 수많은 풍선과 끈은 강, 바다, 호수, 숲 등으로 떨어져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자연에 머무르며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첨부 1~3]

1986년 미국 클리블랜드에서는 150만개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했다가 선박 프로펠러에 풍선이 엉키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풍선을 삼켜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국의 옥스퍼드·카디프, 미국 뉴욕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지브롤터 등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부터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모든 행사 때 풍선 날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각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생태계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중단하도록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풍선 날리기 행사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안내하고 민간 행사에서도 풍선 날리기 행사가 열리지 않도록 하여 생태계와 환경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협조할 것을 적극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함께 모여 행복을 바라는 중요한 행사들에 풍선이 대량 투기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긍정적인 검토와 18일까지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 1. 하늘로 날려보낸 풍선에 의해 고통받는 생명들(사진)

2. [동아일보] 새해소망 담아 날린 풍선, 야생동물에겐 너무 위험한 ‘먹이’ 2020. 1. 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07/99110104/1>

3. [인천일보] 박지혜, ‘풍선 날리기’ 금지법 발의 2024. 8. 25.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3608>

정치하는엄마들



담당자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시행 2024. 12. 17. (총 8매)

홈페이지 www.politicalmamas.kr

이메일 act@politicalmamas.kr

□첨부 1. 하늘로 날려 보낸 풍선에 의해 고통 받는 생명들(사진)



새해소망 담아 날린 풍선, 야생동물에겐 너무 위험한 ‘떡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1-07 03:00 ▾

야생동물 위협하는 풍선날리기 행사



1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서우정 해변에서 새해를 맞아 풍선 1000여 개를 날리는 행사가 벌이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고통과 죽음의 그늘.”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1일 제주도에서 열린 풍선 날리기 행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새해를 맞아 제주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은 풍선을 날리며 한 해의 소망을 빌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할 새해, 예쁜 풍선이 누구에게 고통과 죽음을 드리웠다는 말일까.

○ 풍선을 삼키는 야생동물들

죽음의 주인공은 야생동물이다. 산과 들, 바다로 날아가 떨어진 색색의 풍선 조각을 야생 동물들은 먹이로 착각해 삼키고 만다. 지난해 3월 호주 태즈메이니아대 연구팀에 따르면 51종의 바닷새 1733마리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삼킨 해양쓰레기 중 연성 플라스틱은 5%에 불과했지만 사망률은 40% 이상이었다. 연구팀은 “특히 풍선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쓰레기 파편”이라고 설명했다.

풍선에 달린 플라스틱 노끈이 새의 다리에 걸리거나, 이를 삼킨 초식동물의 소화기관에 엉키는 경우도 있다. 2017년 영국에서는 세 살짜리 말이 풍선 줄을 삼켰다가 패닉에 빠져 벽에 부딪힌 뒤 숨진 일도 있었다.

풍선 날리기의 특성상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풍선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자체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풍선의 주 재료인 라텍스 고무가 분해되는 데는 4년 이상 걸린다. 노끈의 재료인 플라스틱은 수백 년간 썩지 않는다.

○ 여전히 곳곳에서 날리는 풍선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는 곳이 많다. 네덜란드는 2015년 암스테르담을 시작으로 많은 도시에서 풍선 날리기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페인 지브롤터 등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풍선 날리기는 금지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연말연시를 기해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를 전면 금지했다.



유럽의 한 해변가에서 발견된 아생조류의 다리에 풍선 노끈이 걸려 있다. 풍선은 쉽게 썩지 않아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끼친다. 환경단체 발문행로 홈페이지

그러나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가 열리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최소 13개 지자체가 새해맞이 행사로 풍선 날리기를 직접 진행하거나 다른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려 했다. 이 중 일부는 시민·환경 단체의 민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풍선 날리기를 강행했다.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열린 '제18회 안면도 저녁놀 축제'가 그런 경우다. 태안군청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주관한 축제에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이라며 "공문으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단체 측이 이미 풍선을 구매한 이후라 취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1일 오전 강원 양구군 비룡산 일출봉에서도 새해 소원을 기원하는 풍선을 날렸다. 이 행사를 주관한 양구군산악연맹 측은 "올해는 이미 풍선을 구입한 상태라 행사를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풍선을 날린 곳도 있었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이 구청 광장에서 개최한 새해맞이 행사에서는 진행자가 "지금 날리는 풍선은 친환경 풍선"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풍선을 날렸다. 친환경 풍선은 보통 미생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친환경 풍선이라도 문제는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조건은 약 60도에서 6개월 내에 플라스틱이 90% 이상 분해되는 것. 그러나 실제 자연환경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 특히 온도가 낮은 해양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는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많은 토양에 비해 해양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 속도가 느리다"고 말했다. 이에 서초구청 측은 "친환경 풍선이라고 해서 날렸는데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현행법으로는 막을 길 없어

'정치하는엄마들'의 수경 활동가는 "환경을 해치는 행사가 우후죽순처럼 유행하는 상황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며 "환경부가 나서서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행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우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풍선 날리기를 막기에는 풍선을 날리는 순간 폐기물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풍선을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 항목에 추가해 전 국민의 풍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풍선 날리기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규제하는 부분은 없다"며 "향후 더 문제가 되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나 지침 형식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첨부 3. [인천일보] 박지혜, ‘풍선 날리기’ 금지법 발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예방에 앞장설 것” 2024. 8. 25.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3608>

인천일보

HOME > 정치 > 경기

박지혜, ‘풍선 날리기’ 금지법 발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예방에 앞장설 것”

서 라다솜 기자 | © 승인 2024.08.25 14:25

하늘로 날린 헬륨 풍선...환경 오염과 야생동물 생명 위협

해외 각국, 풍선 날리기 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규제 도입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사건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경기 의정부시갑) 국회의원이 공중으로 풍선을 쏘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풍선류를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국가적인 행사나 연구 목적 등을 제외하고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그간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졌으나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하늘로 올라간 풍선 조각이 산이나 바다에 떨어지면 조류나 해양 생물이 이를 먹이로 착각해 삼키게 되는데, 이것이 소화 기관을 막고 장기를 손상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왔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 여러 국가 및 지자체에서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것을 쓰레기 불법 투기와 같은 행위로 취급해 벌금을 물린다.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야외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기획했던 전국 9개 지자체 가운데 7곳이 시민들의 민원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풍선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여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저작권사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